

사회취약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도배·장판 교체 주거환경 개선...질환자 전문병원 연계 진료 환경부·사회공헌기업 등과 업무협약...10월부터 본격 시행

광주시가 사회취약계층의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는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가구의 실내환경을 현상 조사해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일으키는 유해인자를 진단·컨설팅한 후 개선이 필요한

요한 가구에는 사회공헌기업에서 후원한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활용해 도색·도배·장판 교체 등 친환경 맞춤형 주거로 탈바꿈시켜 환경성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또 사회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자에게는 환경성질환 전문병원과 연계해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원하는 진료서비스도 제공한다.

한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6월 환경부, 사회공헌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정책·행정 지원, 참여기업은 물품 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 수행·활동 지원, 지자체는 진단 대상 가구 추천·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후원 물품이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지원한다.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가 요청한 사회취약계층 63개 가구에 대해 진단과 컨설팅을 마쳤다. 시는 환경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선 가구 선정위원회를 통해 개선 가구를 선정하고, 10월 초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에 의해 광주지역 사회취약계층 312개 가구를 진단·컨설팅하고 83개 가구의 실내 환경을 개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건설기술용역 업체 실태조사 기준미달업체 등록취소 등 조치

광주시는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부실·부적격 업체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광주시 소재 32개 업체 중 수주 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이다. 시는 9월초부터 무실적 업체로부터 실태조사에 따른 소명자료를 취합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 등록기준 미달의 업체에 대해 10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충족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확보, 자본금 보유, 사무실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살피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등록취소 등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DJ센터 주민서포터즈 발대식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지난 21일 고객 상생 경영 실현 및 지역민 참여 증대를 위한 주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민 서포터즈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1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총 18명이 선발됐다. 주민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센터 홍보 및 행사지원, 공식사업 참여, 간담회를 통한 센터 발전 및 개선관련 고객 의견 수렴 등 센터 운영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생사법경찰과 10월부터

주택가 환경공해업소 단속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10월 1일부터 두 달간 분진, 악취, 소음 등이 발생하는 주택가 환경공해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습 민원유발업소, 환경관리 취약업소가 대상이며, 특히 주택가 주변에서 불법도장을 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 폐기물 불법 방치로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고물상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업체 중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는 기술지원과 조업시간 조정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환경공해 신고는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 지역번호+128로 제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용기·공감·나눔·연결...광주평생학습 주간 행사

10월 11일부터 이틀간 DJ센터·5·18기념문화센터서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0월 11일부터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와 5·18기념문화센터에서 '평생학습 사색(Four Colors)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2018 광주평생학습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 정보와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 간의 정보교류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용기, 공감, 나눔, 연결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해의 달 기념행사', '시민참여 원탁토론', '평생학습인의 밤', '평생학습 정책포럼' 등 4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0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성인

교육사, 평생학습자가 교류하는 '평생학습인의 밤' 행사가 이어진다. 10월 12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평생학습 정책포럼'은 '민선7기 정책방향과 평생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김일태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등 4명이 주제발표를 한다. 배영주 조선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에서 10월 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세부행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시민참여 원탁토론'과 '평생학습인의 밤'은 500명, '평생학습 정책포럼'은 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중 취안저우시 우호교류 확대

주석 등 6명 방문 우호협력도시 심화 의향서 체결

광주시와 중국 취안저우시와의 우호 교류를 확대한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3층 비즈니스 룸에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천천취안저우시 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취안저우시 방문단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취안저우시와의 우호협력도시 심화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 중국 취안저우시는 중국 국가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기점도시이자 푸젠성 경제 중심지다. 시와 취안저우시는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첫 교류도시로 인연을 맺은 후 우호협력도시로서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우호도시 심화 의향서 체결로 그동안 문화 부문에 한정했던 교류가 경제, 과학기술 및 청소년,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

된다. 취안저우시는 지난해 사드배치 여파로 한중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광주시의 정율성음악제 개최를 환영하는 것은 물론 성공적인 음악제 개최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지난 9일 정율성 음악제 참석차 취안저우시를 방문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환담을 나눈 취안저우시 왕윤리 시장은 문화 뿐 아니라 경제, 교육 등 교류범위를 확대하자고 건의하면서 이번 교류 확대가 성사됐다. 또 지난 20일 5박6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취안저우시 방문단 가운데 공연단은 이날 중국총영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건국기념일 기념행사에서 문화공연을 통해 취안저우시를 대표하는 '민남 문화'를 선보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해 3353명 조상땅 1600㎡ 찾았다

해마다 신청자 증가

지난해 광주시의 '조상땅찾기서비스'로 시민 3353명이 1만3622필지 1600㎡의 토지를 되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5년 4451명, 2016년 7279명, 2017년 9382명이 신청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8384명이 신청해 2822명에게 1200㎡의 토지 내역을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지 않은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

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로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지까지 30분거리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 (062) 412-2800